

## 청년 졸업자 주요 고용지표 현황

- 최근 청년층(15~29세) 고용지표의 흐름을 살펴보면 고용률보다 실업률의 변화가 비교적 크게 나타나고 있음.
  - 고용률은 2015년 68.4%, 2016년 68.8%, 2017년 68.5%로 지난 3년간 거의 횡보하는 중이며 이는 세계금융위기 여파가 남아 있는 2009년 정도를 제외하면 지난 10년간 마찬가지로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음.
  - 그에 비해 실업자는 2015년 267천 명 수준에서 2017년 322천 명까지 증가하였고, 실업률은 2009년 7.7%를 시작으로 소폭 감소하다가 2012년부터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에는 9.8%에 달함.

〈표 1〉 졸업자·신규졸업자 청년(15~29세) 주요 고용지표 현황

(단위: 천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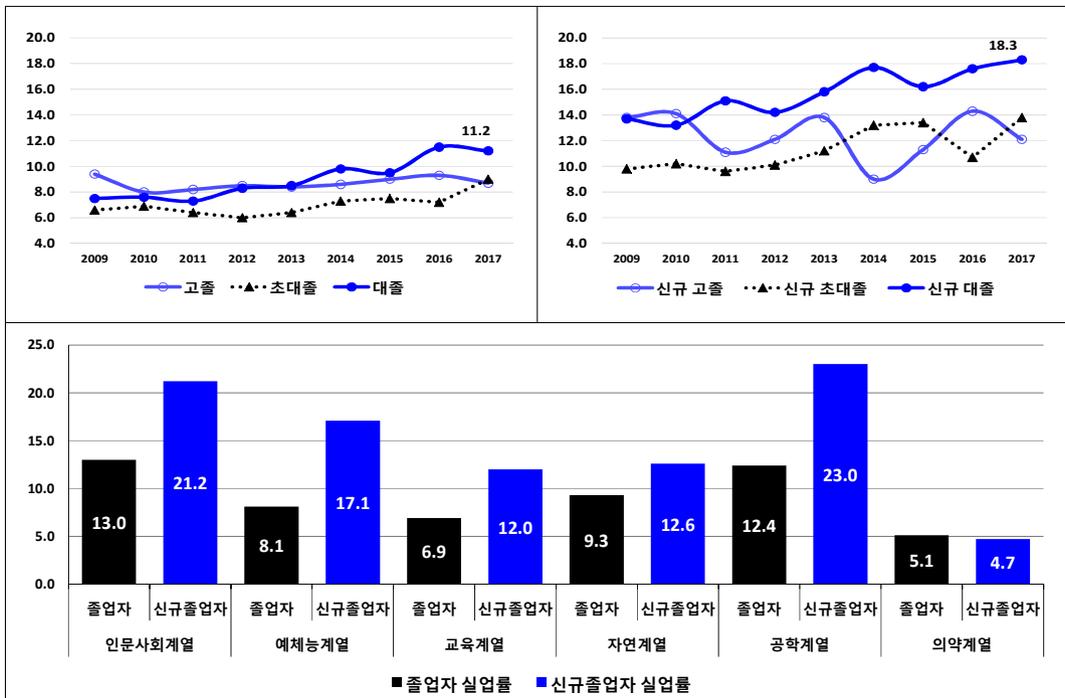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졸업자	인구	4401 (-3.8)	4293 (-2.8)	4202 (-2.1)	4137 (-1.5)	4025 (-2.7)	4003 (-0.5)	4092 ( 2.2)	4222 (3.2)	4318 ( 2.3)
	고용률	68.3 (-1.4)	67.9 (-0.6)	68.1 ( 0.3)	68.3 ( 0.2)	68.4 ( 0.1)	68.9 ( 0.8)	68.4 (-0.7)	68.8 (0.6)	68.5 (-0.4)
	실업률	7.7 (14.9)	7.5 (-3.2)	7.2 (-3.5)	7.5 ( 3.8)	7.6 ( 2.0)	8.6 (12.2)	8.7 ( 1.8)	9.6 (9.8)	9.8 ( 2.7)
신규졸업자	인구	997 ( 0.7)	1080 ( 8.3)	1083 ( 0.3)	1091 ( 0.7)	1089 (-0.2)	1082 (-0.6)	1151 ( 6.4)	1190 (3.4)	1200 ( 0.8)
	고용률	57.5 (-0.7)	54.9 (-4.5)	54.8 (-0.1)	54.6 (-0.4)	56.6 ( 3.5)	55.3 (-2.3)	56.3 ( 1.2)	56.3 (0.6)	55.2 (-2.0)
	실업률	12.4 ( 7.0)	12.1 (-1.9)	12.6 ( 4.1)	12.4 (-2.3)	13.6 (10.1)	14.9 ( 9.8)	14.5 (-3.1)	15.0 (3.4)	15.9 ( 6.1)

주: 괄호 안은 고용지표의 증가율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한편, 최종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규 졸업 청년(들)의 노동시장에서의 어려움이 관찰되는데, 특히 실업률 증가 양상이 특징적임.
  - 신규졸업자 중 실업자는 2009년에 81천 명이었으나 2017년에는 125천 명에 달하면서 큰 폭으로 증가했고, 이에 따라 실업률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7년에는 전년대비 0.9%p 증가한 15.9%를 기록함.
  - 신규졸업자는 학교에서 직장으로서의 첫 이행기간을 거치는 만큼 기졸업자들에 비해 취업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이들이 노동시장 진입 초기에 얼마나 큰 어려움에 직면하는지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
- 변화가 큰 실업률을 학교급과 계열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대졸자의 실업률 상승이 가장 두드러졌고, 계열별로는 인문사회계열, 예체능계열, 공학계열의 실업률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
  - 고졸 실업률은 2010년에 전년대비 1.4%p 감소한 9.4%를 기록한 이후로 매우 완만한 증가

[그림 1] 졸업자 · 신규졸업자 청년(15~29세) 학력별 실업률 및 2017년 교육계열별 실업률 현황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1) 경제활동인구 조사 중 조사연도와 최종학교 졸업연도가 같거나 한 해 차이 나는 청년으로 정의함. 예를 들어 2017년 신규 졸업 청년이라 함은 2016년이나 2017년에 최종학교를 졸업한 청년을 뜻함.

세를 유지하고 있고, 신규졸업자 고졸 실업률도 비교적 큰 폭의 변화를 보이지만 일정한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모습임.

- 반면, 대졸자 실업률은 가파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11.2%였고, 신규 대졸자 실업률은 그보다 약 7%p가량 높은 18.3%를 나타냄.
- 계열별로는 인문사회계열, 예체능계열, 공학계열의 어려움이 부각되었는데, 인문사회계열 졸업자 실업률은 13.0%, 이들 중 신규졸업자의 실업률은 21.2%로 상당히 높았으며, 일반적으로 계열별 취업이 활발하다고 알려져 있는 공학계열 실업률도 12.4%, 신규졸업자 실업률은 23.0%를 기록했음.

○ ‘체감실업률’로 일컬어지는 고용보조지표3<sup>2)</sup>을 이용하여 청년 노동시장의 어려움을 보다 현

〈표 2〉 졸업자·신규졸업자 청년(15~29세) 고용보조지표3 현황

(단위 : %)

		졸업자			신규 졸업자		
		2015	2016	2017	2015	2016	2017
전 체		20.3	20.7	21.8	30.8	30.8	33.6
성별	남성	22.0	22.3	23.9	32.3	35.5	36.4
	여성	18.9	19.3	20.0	29.4	29.4	30.9
학력별	고졸	20.7	20.7	20.7	27.6	31.9	30.7
	초대졸	22.5	24.2	24.5	32.7	35.3	36.1
	대졸	22.5	24.2	24.5	32.7	35.3	36.3
계열별 (고졸)	인문계열	22.8	22.3	23.4	33.3	35.3	36.3
	상공농수산계열	19.1	19.4	18.7	24.7	29.6	25.9
계열별 (대졸)	인문사회계열	26.3	29.3	27.8	39.0	42.7	40.2
	예체능계열	17.9	21.2	21.5	25.1	22.8	38.3
	교육계열	17.7	21.3	23.3	23.7	29.1	29.7
	자연계열	22.7	20.0	24.9	41.5	34.4	31.1
	공학계열	21.3	22.5	24.7	28.3	36.4	40.1
	의약계열	12.2	9.9	10.7	22.1	15.0	11.7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2) 고용보조지표3 =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 실업자 + 잠재경제활동인구) / 확장경제활동인구 \* 100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실제 취업시간이 36시간 미만인면서 추가 취업을 희망하고 추가 취업이 가능한 자  
 잠재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조사대상주간에 취업이 불가능했던 자  
 잠재구직자: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조사대상주간에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한 자  
 잠재경제활동인구 = 잠재취업가능자 + 잠재구직자  
 확장경제활동인구 = 경제활동인구 + 잠재경제활동인구

실적으로 살펴보면, 2017년 전체 청년(15~29세) 고용보조지표3 값이 21.8%로 나타났는데 비해 신규졸업자들은 그보다 높은 33.6%를 기록하면서 신규 졸업자의 체감적 어려움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남.

- 2015년부터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하여 시계열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졸업자의 체감 실업률은 30.8%에서 33.6%로 뚜렷한 증가양상을 보였으며, 모든 학력에서 체감실업률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 특히 대졸 인문사회계열에서 신규 졸업자 기준 2017년 40.2%의 체감실업률을 기록했고 이는 그나마 2016년 42.7%에 비해서는 2.5%p 감소한 수치임.
- 공학계열도 2015년에는 28.3%였던 체감실업률이 2017년에는 40.1%로 11.8%p나 증가하면서 대졸 신규실업자의 어려움이 특정 계열에 편중된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 차원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줌.

(김종욱, 동향분석실 연구원)